

# 성경해석학

저자: 리차드 프랫 2 세(Th.D., Harvard)외 다수

역자: 이창배 (Ph.D., UCLA)

번역 후원: 이유선 (Daughter)

제 2 강

## 해석을 위한 준비



THIRD MILLENNIUM  
MINISTRIES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3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 **ABOUT THIRD MILLENNIUM MINISTRIES**

Founded in 1997,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a nonprofit Christian organization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In response to the growing global need for sound, biblically-based Christian leadership training, we are building a user-friendly, donor-support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five major languages (English, Spanish, Russian, Mandarin Chinese, and Arabic) and distributing it freely to those who need it most, primarily Christian leaders who have no access to, or cannot afford, traditional education. All lessons are written, designed, and produced in-house, and are similar in style and quality to those on the History Channel<sup>®</sup>. This unparalleled, cost-effective method for training Christian leaders has proven to be very effective throughout the world. We have won Telly Awards for outstanding video production in Education and Use of Animation, and our curriculum is currently used in more than 192 countries. Third Millennium materials take the form of DVD, print, Internet streaming, satellite television transmission, and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http://thirdmill.org>.

# 성경해석학

## 제 2 강 해석을 위한 준비

### 목차

I. 서론(Introduction).....	1
II. 성령님에 대한 의존(Dependence on Holy Spirit).....	1
A. 영감(Inspiration)	2
1. 신적 근원(Divine Source)	5
2. 인적 수단(Human Means)	8
B. 조명(Illumination)	9
III. 인간적인 노력의 필요성(Need for Human Effort).....	10
A. 중요성(Importance)	11
B. 영향들(Influences)	12
1. 석의(Exegesis)	13
2. 상호 작용(Interaction)	13
3. 체험(Experience)	14
IV. 결론(Conclusion) .....	15

# 성경해석학

## (He Gave Us Scripture: Foundations of Interpretation)

### 제 2 강 해석을 위한 준비(Preparation For Interpretation)

#### I. 서론(INTRODUCTION)

우리가 어떤 과업을 시작할 때마다 올바른 종류의 준비를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누가 복음(14:28-29)에서 예수님 자신도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길 원했지만 준비를 잘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과업을 마무리짓지 못한 것을 예로 드시며 이런 생각을 보여 주셨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도 일어난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온갖 종류의 활동을 요구하고 우리의 일평생 동안 계속되는 복잡한 과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준비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Whenever we begin a project, it's wise to make the right kinds of preparations. In the Gospel of Luke, Jesus himself illustrated this idea when he described a man who wanted to build a tower, but failed to complete the project because he had not prepared. Well, something similar is true when it comes to interpreting the Scriptures. Making sense of the Bible is a complex project that requires all kinds of activities and extends throughout our entire lives. So, we have to make sure that we prepare to interpret the Bible in the right ways.

이 강의는 성경해석학 곧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탐구하는 강좌의 두 번째 강의이다. 우리가 이 강의의 제목을 "해석을 위한 준비"라고 한 것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 전에 해야 할 몇 가지 유용한 일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This is the second lesson in our series *He Gave Us Scripture: Foundations of Interpretation*, a series devoted to exploring how followers of Christ should interpret the Bible. And we've entitled this lesson "Preparation for Interpretation" because we'll be focusing on some things it's helpful to do before we read and interpret the Scriptures.

이 강의에서 우리는 해석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에 있어서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를 살필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고찰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논할 것이다. 그럼 먼저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살펴보자. In this lesson, we'll look at two crucial elements of our personal preparation for interpretation. First, we'll consider our dependence on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And second, we'll address the need for our own human effort. Let's look first at our dependence on the Holy Spirit.

## II. 성령님에 대한 의존(DEPENDENCE ON HOLY SPIRIT)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 모두는 다양한 기독교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쩌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은사 곧 일상 생활에서 그분의 임재와 능력 주심을 강조하는 교파 출신일지 모른다. 혹은 어쩌면 여러분은 신자들의 일상 생활에서 성령님의 행위를 최소화하는 교파 출신일지 모른다. 그런데 성경 해석과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에 관하여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출신 교파에 상관없이 우리 각자에게 확신과 도전을 줄 것이다.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을 성령님의 사역에 맡겨야 하지만, 성경 자신이 우리로 특별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이지만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그분께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성령님께 의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When we mention the Holy Spirit, we all know that different Christians react in different ways. Perhaps you're from a branch of the church that stresses the gifts of the Spirit — his presence and empowerment in everyday life. Or maybe you're from a branch of the church that minimizes the Spirit's activity in the daily life of believers. Well, what we're about to say about the Holy Spirit's work in the interpretation of Scripture will both reassure and challenge each one of us. As we interpret the Bible, we must consciously give ourselves to the ministry of the Spirit, but the Bible itself teaches us to do this in

particular ways. To ignore the Holy Spirit is the height of foolishness; but we must pay attention to him in the ways that the Bible instructs. What then does it mean to depend on the Holy Spirit as we interpret the Scriptures?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이론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성경해석학에 대한 현대의 학문적인 서적이나 강의들은 자주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주의를 거의 기울이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성경해석학을 비인격적인 일, 곧 본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원리들이나 방법들을 그저 사용하는 과정인 것처럼 대한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해석학 곧 성경의 해석은 인간 해석자들과 성령님 자신 사이의 상호 작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인격적이다. Most evangelicals theoretically acknowledge that the Holy Spirit plays a vital role in our interpretation of Scripture. But modern academic books and lectures on biblical hermeneutics often pay almost no attention to the Holy Spirit's role. Instead, we commonly treat biblical interpretation as if it were an impersonal event, a process in which we simply implement a list of principles or methods to understand a text. But from a biblical point of view hermeneutics, or the interpretation of Scripture, is very personal because it involves interaction between human interpreters and the person of the Holy Spirit.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의존하는 일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필수적이다. 첫째로, 성령님은 성경의 영감의 원천이셨다. 둘째로, 성령님은 인간 해석자들에게 조명을 주신다. 그럼 먼저 영감의 문제를 살펴보자. Conscious dependence on the Holy Spirit in interpretation is crucial for at least two reasons. First, the Spirit was the source of the inspiration of Scripture. And second, the Holy Spirit grants illumination to human interpreters. Let's turn first to the matter of inspiration.

## **A. 영감(INSPIRATION)**

나는 언젠가 한 유명한 저자를 만날 기회를 가졌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의 책들은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삶의 매우 중요한 시기에 도움이 되었었다. 나는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그와 함께 앉아서 그의 책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했다. 대화 중 어느 지점에서 나는 그의 한 책으로부터 얻은 특별히 유익했던 통찰에 대하여 그에게 말했다. 그러나 너무 놀랍게도, 그는 나를 쳐다보며 “자네는 전혀 틀리게 읽었네. 그것은 내가 썼던 것이 결코 아니라네.”라고 말했다. 줄잡아 말해도 그때 나는 어쩔 줄 몰라했다. 그러나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에게 “글쎄요, 그 책을 쓰신 분이니 저보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라고 인정했던 것을 기억한다. I remember once having the opportunity to meet a well-known author whose books had helped me at a critical time in my Christian life. I was so excited to sit down with him and to tell him how much his books meant to me. At one point in the conversation, I told him about a particularly beneficial insight that I derived from one of his books. But much to my surprise, he looked up at me and said, “You’ve got that all wrong! That’s not what I wrote at all!” Well, to say the least, I was embarrassed. But I remember taking a deep breath and admitting to him, “Well, I guess the man who wrote the book knows what it means better than I do.”

그런데 많은 점에 있어서 똑같은 일이 성경에도 적용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영감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책에 대한 통찰력을 찾아야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Well, in many ways, the same is true with the Bible. The Holy Spirit of God inspired every word of Scripture. And in this sense, he’s the author of Scripture. So, it only stands to reason that we should seek insight into his book from him.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영감의 교리가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성령님께서서는 인간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쓰게 하였고 그들의 기록이 오류가 없도록 그들의 작업을 감독하셨다.**

In a very basic sense, the doctrine of inspiration says that:

**The Holy Spirit moved human beings to write God's revelation as Scripture and superintended their work in a way that made their writings infallible**

베드로가 이런 개념을 벵후 1:20-21 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들어보라.

**(개역개정, 벵후 1:20-21) 20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Listen to the way Peter expressed this idea in 2 Peter 1:20-21:

**No prophecy of Scripture came about by the prophet's own interpretation. For prophecy never had its origin in the will of man, but men spoke from God as they were carried along by the Holy Spirit (2 Peter 1:20-21).**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령님으로부터 유래되었고 성령님께서 인간들을 감동시키시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도록 하셨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은 그들이 쓴 것이 절대적으로 참되고 인간 저자들의 말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증했다. 이와 비슷하게 바울도 디모데후서 3 장 6 절에서 모든 성경이 영감되었다고 말했다. In this passage, Peter said that all biblical prophecy originated with the Holy Spirit and that the Spirit moved human beings to write down God's revelation. This process ensured that what they wrote was absolutely true, and that the words of the human authors were also the words of God. And in 2 Timothy 3:16, Paul indicated that all of Scripture was similarly inspired.



(통[Stephen Tong] 목사)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연결된 유기적 진리이고, 생명에 기초하고 있고 생명의 모든 필요들을 제공해 주는 생명의 말씀인 놀라운 책이다. 성경은 성령님이 저자이시므로 진리이다. 성령님이 자신과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일을 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예레미야나 바울이나 오바댜나 요나나 어느 누구의 책을 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 모두가 다른 단어들을 사용했지만 한 분 성령님께서 선택된 단어들을 영감하셨기 때문에 그 단어들의 배후에 있는 정신은 동일하다. The Bible is organic truth, interconnected from beginning to end, a wonderful book that is the Word of life, grounded in life, that provides for all the needs of life. It is truth because it has the Holy Spirit as the author, and it's impossible for the Holy Spirit to go against himself or contradict himself... It doesn't matter if you read Jeremiah or Paul or Obadiah or Jonah; they all use different words, but the spirit behind those words is the same, because one Spirit inspired the words that were chosen.

— Rev. Dr. Stephen Tong, translation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영감하셨다는 사상의 입장에 서 있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람들도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견해를 거의 항상 지지해 왔다. 그럴지라도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영감의 성격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Christ and his disciples were committed to the idea that the Holy Spirit inspired the writers of Scripture. And those who have attempted to follow Christ have almost always affirmed some sense in which the Scriptures were inspired. Even so, those who profess the Christian faith have tended to understand the nature of inspiration in different ways.

우리의 목적상, 현대 교회에서 두드러진, 영감에 대한 세 가지 견해에 집중할 것이다. 첫째로, 어떤 사람들은 소위 “낭만적/공상적(romantic)” 영감설을 믿는다. 이 견해에 따르면 세속적인 시인들이나 작곡가들이 감동 받아서 그들 자신의 작품을 쓴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들을 영감하셨다. 이 견해에 의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무오한 진리가 아니고 인간 저자들의 개인적인 사상과 견해에 불과할 뿐이다. For our purposes, we'll focus on three views of inspiration that are prominent in the modern church. First, some people believe in what we'll call a “romantic” view of inspiration. According to this view, the Holy Spirit inspired biblical writers in the same way that secular poets or musicians might be moved to write their own works. In their view, Scripture isn't God's infallible truth, but only the personal reflections and opinions of the human authors.

둘째로, 어떤 기독교인들은 소위 “기계적” 영감설을 믿는다. 이 견해에 의하면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비교적 수동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을 구술하시고 인간 저자들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적었다. Second, other Christians believe in what we might call “mechanical” inspiration. According to this outlook, biblical writers were relatively passive as they wrote Scripture. The Spirit of God essentially dictated the Bible and human writers recorded what he said.

셋째로, 대부분의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의 영감 사역이 “유기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성령님은 인간 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로 기록하게 하시며 그들의 말들을 감독하시고 지도하셨다. 그 결과로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동시에 성령님은 인간 저자들의 기록을 감독하실 때 그들의 개성, 경험, 견해, 의도를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또한 전적으로 인간 저자들의 말이다. 이 세 번째 견해가 영감의 성격에 대한 성경 자체의 증언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Third, most evangelical Christians affirm that the Spirit's work of inspiration was “organic.” According to this view, the Holy Spirit moved human authors to write and supervised and directed their words. As a result, the words of Scripture are the words of God. At the same time, the Holy Spirit used the

personalities, experiences, outlooks, and intentions of human authors as he supervised their writing. So, the words of Scripture are also very much the words of its human authors. This third view best reflects the Scriptures' own testimony about the nature of inspiration.

(아이리히 [Howard Eyrich] 박사)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한 과정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많은 저자들에 의해 수백년에 걸쳐 쓰여졌고 그들이 쓰는 방식과 그들이 그들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식과 그들이 사용한 언어에서 그들 나름의 개성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개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우 다양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로서 제사장, 농부, 목동, 왕, 의사, 그리고 우리 문화 기준으로 말하면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곧 사도 바울 등을 만난다.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와 언어 뿐만 아니라 구약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던 어떤 다른 언어보다도 헬라어를 사용하여 신학적 사색을 위한 적절한 표현을 더 잘 끌어낼 수 있었다. Reading the Scriptures is a very fascinating process, because it was created over hundreds of years by multiple authors, and so you see those personalities flowing out in the way they write, in the way they relate to the people around them, and in the language they use. And so, their personalities are important to the Word of God because God uses them in a lot of different ways. For example, you have priests that write, you have a farmer that writes, a herdsman that writes, you have a king that writes, you have a medical doctor that writes, and you have a man who, in our culture, would have a Ph.D. from "Hebrew University," the apostle Paul, who has a phenomenal grasp of the Old Testament as well as Greek culture and

**Greek language and is able to take the Greek language and pull out of it its appropriateness for the expression of theological thinking probably better than any language that's ever existed.**

**— Dr. Howard Eyrich**

예를 들어, 벤후 3:15 에서 베드로가 영감의 유기적 성격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했는지 들어보라.

**(개역개정 벤후 3:15)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For instance, listen to the way Peter described the organic nature of inspiration in 2 Peter 3:15:

**Our dear brother Paul also wrote you with the wisdom that God gave him (2 Peter 3:15).**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한편으로, 베드로는 "바울이 썼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이 그의 서신에 관여했음을 시인했다. 다른 한편으로, 베드로는 이 서신들을 바울의 것으로만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썼다고 설명했다. 바울의 서신들은 성령님의 인도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냈다. In this passage Peter revealed how Paul's letters should be received. On the one hand, he said that, "Paul wrote." So, Peter affirmed Paul's involvement in his epistles. But on the other hand, Peter didn't just attribute these epistles to Paul. Instead, he noted that Paul wrote, "with the wisdom that God gave him." Paul's letters represented God's wisdom because of the guidance of Holy Spirit.

(라이켄[Philip Ryken] 박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 말은 사실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님에 의해 영감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말 또한 사실이다: 그 모든 말씀이 진짜 사람에게 의해 쓰여졌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주권적으로 성경의 저자들을 각각 감독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의 개성, 그들의 문예적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면서도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진짜 말씀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예레미야를 읽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의 슬픔과 열정을 느끼고, 누가복음을 읽을 때 그의 의학적 세부사항에 대한 주의 깊은 안목과 그의 역사와 정확한 역사에 대한 사랑을 느낀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성경 저자들의 개성과 체험이 성경 안에서 밝히 드러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권위와 영감과 능력 어느 하나도 상실하지 않고 일어난다. This is true about the Word of God: every word in Scripture is inspired by the Holy Spirit. This is also true about the Word of God: every one of those words was written by a real human being, and in an amazing way, God sovereignly superintended the gifts and experiences of each of those biblical writers so that their personality, their literary style comes through, and at the same time the Bible is the very Word of God. So when you're reading Jeremiah, for example, you get a sense of his grief and passion for the people of God; when you read the Gospel of Luke, you get a sense of his careful eye for medical details and his love for history and accurate history. I mean, the personalities of these biblical writers and their experiences shine through in Scripture, but that happens without losing any of God's own authority and inspiration and power in the Word of God.

— Dr. Philip Ryken

(복[Darrell L. Bock] 박사)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스타일들이 다르고 저자들이 자신의 은사들을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저자들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사용한 방식이 다양하고, 자료를 제시하시는데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 다양한 것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복음서들 가운데 마가복음은 행동 장면들을 많이 제시하며 담화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반면, 요한복음은 담화로 가득차 있고 다른 관심사를 보이고 있다. 이 저자들은 자신의 고유한 스타일, 배경, 표현을 사용하며 글을 썼다. 이것은 비슷한 분야를 다룬 다양한 책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감독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 배후에 계셨다는 의미에서 그들을 영감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하도록 하셨다. Well anyone who reads the Scriptures can see that the styles differ and that the writers are using their own gifts because of the different ways in which different writers express themselves, and the different kinds of choices these writers make to present the material. For example, in the Gospels we have Mark **who doesn't do much with action scenes ... or does much, rather, with action scenes, but keeps his discourses to a minimum**, whereas the Gospel of John is full of discourses, which reflects a different interest. So these writers are writing out of their own style, their own background, their own expression, and that's very clear from the differences we see between various books in those areas. God is inspiring them in the sense of directing

what they say and standing behind what they say, but he is letting them express it in their own way.

Cindy Sawyer: In the second interview, he misspeaks at first and says the opposite of what he means, but then corrects himself. In translation, it would be much better to translate only what he meant to say. I suggest leaving out his stumble and translating the sentence this way:

“For example, in the Gospels we have Mark who ... does much with action scenes, but keeps his discourses to a minimum; whereas, the Gospel of John is full of discourses, which reflects a different interest.”

— Dr. Darrell L. Bock

이제 우리는 해석이란 과업에 우리 자신을 적응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유기적 영감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다룰 것이다. 첫째로, 성령님이 성경의 신적 근원이라는 사실을 다룰 것이다. 둘째로, 성령님께서 성경을 만드실 때 인적 수단을 통해 일하셨다는 사실을 다룰 것이다. 그럼 먼저 성령님이 성경의 궁극적인 신적 근원이란 개념을 살펴보자. We'll touch on two important aspects of organic inspiration that help us orient ourselves to the task of interpretation: first, the fact that the Holy Spirit was the divine source of Scripture; and second, the fact that he worked through human means to produce Scripture. Let's look first at the idea that the Spirit is the ultimate divine source of the Bible.

### 1. 신적 근원(DIVINE SOURCE)

모든 성경을 영감하신 분이므로 성령님은 성경의 의미와 성경이 그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에 정통해 계신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준비하는 일에는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이신 성령님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성경을 접근해야 한다. As the one who inspired all Scripture, the Holy Spirit has intimate knowledge of the Bible's meaning and of the way it communicates that meaning. So, preparing to interpret the Scriptures involves dealing

personally with the Holy Spirit as their ultimate author. We have to approach the Scriptures humbly, in full submission to him.

(바우어[David R. Bauer] 박사) 나는 성령님을 의존하는 것이 성경의 심오한 이해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그것 자체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성령님을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은 불신자들의 개종을 위한 복음주의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물론 그 이유는, 교회가 믿고 내가 그 주장에 동의하는 바,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영감하셨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 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려고 의도했던 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하자면, 그 영적인 원천과 접촉할 필요가 있다. It is, I think, essential to rely upon the Holy Spirit for a profound, in depth understanding of the Bible. It is clear, I think, that one does not have to rely upon the Holy Spirit to understand the message of the Bible as such[=**per se = in and of itself/essentially/intrinsically**]. If that were the case, the Bible would have no evangelistic function. [**Cindy's paraphrase: "If we had to rely on the Holy Spirit to understand the basic message/teaching of the Bible, the Bible would have no evangelistic function (or no outreach to unbelievers)."**] But to understand it in depth, there is good reason to think that it's absolutely critical to rely upon the Holy Spirit. Of course, the reason for that is that the church believes, and I certainly agree with its claim, that the Holy Spirit inspired the writers of Scripture. And so in order to understand fully what the



**Holy Spirit intended to say through these writers, we need to be in touch, as it were, with that spiritual source.**

— Dr. David R. Bauer

많은 경우에 성경 저자들은 성경을 다루면서 성령님의 영감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곧바로 승인했다. 인간 저자들의 역할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성령님이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임을 인정했다. On a number of occasions, biblical authors openly and directly acknowledged the Holy Spirit's inspiration as they dealt with the Scriptures. Without denying the role of human writers, they recognized that the Holy Spirit is the ultimate author of Scripture.

예를 들어, 사도행전 4 장 25 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시편 2 편을 다음과 같이 시인하며 교회의 기도를 인도했다.

**(행 4:25) 주(=당신님)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For instance, in Acts 4:25, Peter and John led the church in an affirmation of Psalm 2, saying:

**You spoke by the Holy Spirit through the mouth of your servant, our father David (Acts 4:25).**

이와 아주 비슷하게 히 3:7-8 은 시 95:7-8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역개정: 히 3:7-8)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In much the same way, Hebrews 3:7-8 speaks about Psalm 95:7-8 in this way:

**So, as the Holy Spirit says: “Today, if you hear his voice, do not harden your hearts” (Hebrews 3:7-8).**

이 구절들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구절들에서도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님을 영감하시는 분, 그리고 그러므로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할 때 영감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의존했다. In these and many other passages, biblical writers identified the Holy Spirit as the inspirer, and therefore, the ultimate author of Scripture. And they relied on this understanding of inspiration as they prepared themselves to read, interpret, and apply the Scriptures.

성경의 신적 기원이 암시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성경의 신임성이다. 불행하게도, 때때로 선의의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의 영감에 대한 성령님의 관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령님이 성경을 오류로부터 보호하셨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요 14:16-17 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라.

**(요 14:16-17) 아버지께서 . . .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implications of the divine origin of Scripture is the Bible's unquestionable veracity. Unfortunately, from time to time, well-meaning people say that they believe in the Spirit's involvement in the inspiration of Scripture, but they don't affirm that the Holy Spirit protected the Scriptures from error. But listen to what Jesus said about the Holy Spirit in John 14:16-17:

**The Father ... will give you another Counselor to be with you forever — the Spirit of truth (John 14:16-17).**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실 때 그분이 암시하신 것은 성령님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영감하신 성경도 전적으로 믿을만하다는 사실이다.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석을 위한 우리의 준비의 일부는 성령님과 그분이 영감하신 성경의 절대적인 신임성을 시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When Jesus called the Holy Spirit “the Spirit of truth,” he indicated that the Holy Spirit is utterly truthful. So, we can be sure that the Scriptures the Spirit inspired are also utterly truthful. They don’t lie; they don’t contradict themselves. And therefore, part of our preparation for interpretation should be to affirm the absolute trustworthiness of the Holy Spirit and of the Scriptures he inspired.

(누네즈[Nunez] 박사)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되었다고, 곧 하나님에 의해 내뿜어졌다([세오프뉴토스])고 말했다.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내뿜어졌다면, 그 원천이 완전하고, 그 원천이 무오하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완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오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영감이다. 성령님이 그것을 영감하셨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거주하신다면, 내가 말씀을 연구할 때 나에게 조명과 이해를 주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내 연구가 원래 그 말씀을 영감하신 분의 이해에 기초해야 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영감하셨기 때문이다. 한 책의 저자보다 더 나은 스승이 있을 수 없는데 그 책(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는 스승이 성령님이실 때, 원래 그것을 쓰셨던 그 스승님 자신보다 말해진 것과 영감된 것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다. Paul tells Timothy that the Word of God was

inspired — *theopneustos* — it was breathed out by God. And if it was breathed out by God, then we know that the source is perfect, the source is inerrant, and whatever comes out of him has to be equally perfect and inerrant. That, then, is the inspiration. If the Spirit inspired it, and if the Spirit now dwells in me, when I study the Word, I need to rest, to trust in the Spirit to give me illumination and understanding, because he inspired it in such a way that my study 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one who inspired the Word in the first place. There can't be a better teacher than the author of a book, and the author of the book is the Spirit. And so, when the teacher who illumines our minds is the Spirit, there can't be anybody who can give me a better understanding of what was said, of what was inspired, than the teacher himself, who wrote it in the first place.

— Dr. Miguel Nunez, translation

이러한 확신에 대하여 히포의 주교였던 어거스틴은 그의 편지 82 의 1 장 세 번째 문단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나는 이러한 존경과 영예를 오직 성경의 정경적인 책들에만 돌리는 것을 배웠다. 나는 이 정경적인 책들에 대해서만 저자들에게 전혀 오류가 없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다.

Augustine, Bishop of Hippo, expressed this conviction in his Letter 82, chapter 1, paragraph 3, where he wrote these words:

**I have learned to yield this respect and honor only to the canonical books of Scripture: of these alone do I most firmly believe that the authors were completely free from error.**

어거스틴의 말은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초대 교회의 지배적인 견해를 밝히 보여주며 성경 자체가 가르치고 있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Augustine's words illustrate the prevailing view of the truthfulness of Scripture in the early church and reflect the view taught in the Bible itself.

성경에 익숙한 사람은 누구나 최고의 해석자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성경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때때로 성경은 과학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심지어 성경의 다른 부분과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명백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해석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을 다룰 다양한 방식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경우 해석자들의 해결책이 다른 것은 성경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자신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Now, everyone familiar with the Bible knows that there are many portions of Scripture that challenge even the best interpreters. From time to time, the Scriptures appear to contradict science, our personal experiences, and even other passages of Scripture. How should we deal with these apparent problems? Well, interpreters have a variety of ways to handle these types of issues. And for the most part, their solutions differ not because of the character of Scripture, but because of the interpreters' attitudes toward God himself.

한편으로, 성령님께서 권위적으로 성경을 영감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보다 그들 자신의 이해를 더 높이 평가하며 비평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다른 한편으로, 성령님의 권위적인 영감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신빙성을 드러내거나 증명할 수 없을 때조차도 그것이 참되고 잘 조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제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 On the one hand, those who deny that the Holy Spirit authoritatively inspired the Bible interpret the Scriptures critically, elevating their own understanding over the Spirit's authority. On the other hand, those who

acknowledge the Spirit's authoritative inspiration read the Bible submissively, expecting and assuming it to be true and harmonious, even when they can't demonstrate or prove its truthfulness.

(오스왈트[John Oswalt] 박사)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단지 인간이 지은 또 하나의 책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기적적으로 영감된 하나의 책을 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그저 또 하나의 책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먼저 말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체를 통해 자신을 전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어 버린다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감화를 주는 거룩한 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의 인간적인 오류성과 나의 인간적인 죄성이 성경의 진리를 억누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도록 독자와 해석자인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셔야 한다. When we come to the Bible we do not come to just another human book. We come to a book, which has been miraculously inspired by God. That means that we cannot read the Bible simply as we read another book. Now it has to be said, God has communicated himself in our language, in our styles, and so we do start at that point of simple literary interpretation of what's there. But if we stop there, then we forget that this is a sacred book which God not only inspired in the beginning, but is continuing to inspire to our hearts, so that in order for my human fallibility, my human sinfulness not to overcome the truth of the Scripture, the Holy Spirit has to be constantly

at work in me as the reader and the interpreter to understand what it is God wants to say to me through this passage.

— Dr. John Oswalt

(포이스레스[Vern Poythress] 박사) 해석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첫째로, 성령님은 성경을 영감하셨다. 따라서 분명코 우리는 성경의 주된 저자는 누구시고 그분에 관하여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둘째로, 성령님은 성경의 정확한 이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시다. 고린도전서 2 장 14 절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역개정: 고전 2: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이 그분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충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What's the role of the Holy Spirit in interpretation? A very significant question. For one thing, the Holy Spirit inspired the Scripture, so obviously we want to take into account, who is the principal author of Scripture and what we

can know about him. It's the Holy Spirit who teaches us through the Word about who God is. The second thing is that the Holy Spir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Scripture. In 1 Corinthians 2 it talks about this very thing. In verse 14 it says that:

The natural person does not accept the things of the Spirit of God for they are folly to him and he is not able to understand them because they are spiritually discerned (1 Corinthians 2:14, ESV).

That's the person who has the Holy Spirit. So we need to ask God to send the Holy Spirit and to fill us with his Spirit in order that we may receive faithfully what he is teaching in his Word.

— Dr. Vern Poythress

지금까지 성령님이 성경의 신적 근원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다룰 유기적 영감 교리의 두 번째 측면은 성령님께서 성경을 만드시는데 인적 수단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다. Having looked at the fact that the Holy Spirit is the divine source of Scripture, the second aspect of the doctrine of organic inspiration we'll mention is that the Holy Spirit used human means to produce the Scriptures.

## 2. 인적 수단(HUMAN MEANS)

때때로 기독교인들은 몰몬교도들과 회교도들이 그들의 경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경을 직접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처럼 행동한다. 몰몬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형태의 몰몬경을 요셉 스미스에게 전해 주었다고 믿는다. 회교도들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며 코란경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방식이 아니다. Sometimes Christians act as if they would prefer that God had given us the Bible directly, like Mormons and Muslims claim to have received their holy books. Mormons believe that God delivered the Book of Mormon in complete form to Joseph Smith, and Islam makes a similar claim about the Koran descending from heaven. But this isn't how God gave us the Bible.

그 대신 하나님은 성경이 인간 저자들에서 쓰여지게 하셨다. 하나님은 여러 인간들의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다. 의심할 여지 없이 성령님은 성경에서 인간 저자들의 어떤 영향이나 참여를 제거하실 수도 있으셨다. 성령님은 성경의 어떤 부분이 어떤 사람에 의하여 쓰여지고 다른 부분이 또 다른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을 우리가 결코 말할 수 없도록 모든 구절을 계시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성령님은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로 인간 저자들을 참여시키며 그들의 사상, 동기, 개성을 통하여 일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님을 의존하는 것에는 그분이 유기적으로 성경을 영감하신 방식을 존중하는 것과 그분이 영감하신 인간 저자들을 신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이 의도하신 대로 성경을 해석하려면 성경이 여러 저자들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과 성경이 그 인간 저자들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Instead, God had the Scriptures composed by means of human authors; he revealed himself through the gifts and abilities of different human beings. Without a doubt, the Holy Spirit could have eliminated any influence or presence of human writers in Scripture. He could have revealed every passage so that we could never tell that one portion was written by one man and another portion by another. But he didn't. In his infinite wisdom, he chose to involve and work through the ideas, motives and personalities of human authors. So, part of depending on the Holy Spirit in our interpretation of Scripture is honoring the way he organically inspired Scripture, and trusting the human authors he inspired. So, if we're going to interpret the Bible in the way he intends us to, we have to understand that

the Scriptures were written by different people, and that they reflect the diversity of that human authorship.

예를 들어, 복음서 저자들 곧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생애, 죽으심과 부활이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책들은 동일하지 않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다르다. 마가복음은 누가복음과 다르다. 누가복음은 요한복음과 다르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단점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성경을 영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식의 산물이다. For example, the gospel writers Matthew, Mark, Luke, and John covered basically the same events of Jesus' life, death and resurrection. But their books aren't identical. Matthew is different from Mark. Mark is different from Luke. Luke is different from John. And this isn't a shortcoming of Scripture. It's a product of the way the Holy Spirit chose to inspire the Scriptures.

성경이 유기적으로 영감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의 신적 저작성과 인적 저작성을 둘 다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성령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멈추어 버린다면 우리의 준비는 완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간 저자들을 통하여 곧 그들의 개성, 체험, 관점, 강조점을 통해 일하셨느냐 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영감하신 인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왔는데 인간 저자들은 여러 시대에 여러 방식으로 성경을 썼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께서 성경의 여러 인간 저자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한다. Because the Scriptures were organically inspired, we always have to acknowledge both their divine authorship and their human authorship. When we prepare ourselves to interpret the Bible, it'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we're seeking what the Holy Spirit meant. But if we stop there, our preparation isn't complete. We also have to take into account how the Spirit works through human beings, through their personalities, their experiences, perspectives and emphases. Every word of Scripture is the word of God. But God's word comes to us

through human beings that were inspired by the Spirit, and they wrote in different ways at different times. So, we must always prepare ourselves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 Spirit of God spoke in a variety of ways through the Bible's various human authors.

지금까지 성경의 영감이 어떻게 우리의 성령님에 대한 의존을 요구하는가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계속적인 사역 곧 조명에도 의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자. Having seen how the inspiration of Scripture requires our dependence on the Holy Spirit, let's turn our attention to the way we also depend on his ongoing work of illumination.

## **B. 조명(ILLUMINATION)**

성경해석학과 관련하여 조명은 "성경의 정확한 이해를 인간에게 전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포이스레스[Vern Poythress] 박사) 우리는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을 구별할 수 있다. 하나는 영감 사역인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성경의 원래 저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사 그들이 쓴 것이 그저 인간이 말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신 사역이다. 다른 하나는 조명 사역인데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사역이다. 성령님은 우리 기독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그분이 성경에 영감해 놓으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신다.

In the context of biblical hermeneutics, illumination may be defined as:

**The Holy Spirit's work of conveying a proper understanding of Scripture to a human being**

**We can distinguish two works. One is the work of inspiration where the Holy Spirit comes to the original human authors of**

Scripture and empowers them so that what they write is the word of God, is what God says and not simply what the human being says. Illumination is where the Holy Spirit stands with us. He indwells Christian believers and opens our minds to understand and to receive what he has inspired in the Bible.

— Dr. Vern Poythress

그분의 조명을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단지 인지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 직관, 감정, 의지, 동기, 욕망, 도덕적 양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는 우리의 어떤 부분도 성령님에 의해 조명될 수 있다. Through his illumination, the Holy Spirit grants us knowledge of his Word. And this knowledge isn't purely cognitive. It also impacts our imagination, intuition, emotion, will, motivation, desire, moral conscience — any part of us that contributes to our understanding of Scripture can be illumined by the Spirit.

때때로 기독교 신자들은 우리가 주의깊게 생각만 한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면 인간들은 죄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를 조명하실 하나님 자신 곧 성령님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고전 2:11-13 에서 바울이 성령님의 조명에 관하여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보라.

(개역개정: 고전 2:11-13)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Sometimes Christians assume that if we just think carefully, then we'll be able to understand what the Scriptures teach. But in reality, human beings are so deeply affected by sin that we can't understand the things of God on our own. We desperately need God himself — the Holy Spirit — to illumine us. Listen to how Paul talked about the Spirit's illumination in 1 Corinthians 2:11-13:

**No one knows the thoughts of God except the Spirit of God. We have not received the spirit of the world but the Spirit who is from God, that we may understand what God has freely given us. This is what we speak, not in words taught us by human wisdom but in words taught by the Spirit, expressing spiritual truths in spiritual words (1 Corinthians 2:11-13).**

여기서 바울은 성령님의 사역이 없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할 그대로 알 수 있는 소망이 없음을 설명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격적인 조명이 우리의 성경 해석에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Here, Paul explained that without the work of the Spirit, we have no hope of grasping the thoughts of God as we should. This is why the Spirit's personal illumination is so important to our interpretation of the Scriptures.

성령님의 조명은 자세하게 다루어진 적이 별로 없었던 주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의들 중의 하나가 존 오웬(1616-1683)의 유명한 작품에 나온다. 오웬은 그의 작품 **성경에서 입증된 영적 조명**(*Spiritual Illumination Proved From Scripture*)에서 성령님의 조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유혹자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모든 신적인 진리들은 성경에 포함되어 있고 신적 계시들 안에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들을 위해 알고 믿어야 할 진리들을,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다. 만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 그것들을 가르침 받아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우리로 그것들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게 하신다.

The illumination of the Spirit is a subject that has seldom been addressed at length. But one of the most important treatments appears in the well-known work of John Owen, who lived from 1616 to 1683. In Owen's work, *Spiritual Illumination Proved From Scripture*, he summarized the Holy Spirit's illumination this way:

**All divine truths necessary to be known, and to be believed, that we may live unto God in faith and obedience, or come unto, and abide in Christ; as also, be preserved from seducers, are contained in the Scripture, or proposed unto us in divine revelations. These of ourselves we cannot understand, unto the ends mentioned; for if we could, there would be no need that we should be taught them by the Holy Spirit. But this is so, he teacheth us all these things, enabling us to discern, comprehend, and acknowledge them.**

오웬은 성경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분 안에 거하고" "유혹자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잘 지적했다.

그러나 불신자들조차도 그들 스스로 성경으로부터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로 “신적 진리들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이러한 목적들을 위해” 주어진 성경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 Owen wisely pointed out that the Scriptures give us all we need to “live unto God in faith and obedience,” to “come unto and abide in Christ,” and to “be preserved from seducers.” But as much as even unbelievers may be able to grasp from the Bible on their own, “we cannot understand” the Scripture “unto these ends” unless the Holy Spirit enables us “to discern, comprehend and acknowledge them.”

(비버트[Simon Vibert] 박사) 딤후전 3:16 에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것,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내뿜어졌다는 것, 그러므로 성경 자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사상을 암시한다. 우리가 무언가에 감동되었다고 말할 때 우리는 무언가를 열광하거나 직관적으로 이해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조명”이란 단어는 그러한 개념이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것에 상당히 다른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명이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계몽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과 사고력을 주실 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오하게 영감하셨던 성령님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개념이다. When 2 Timothy 3:16 talks about all Scripture as being God-breathed, it alludes to the idea that the Bible is inspired, or perhaps more accurately “expired” — breathed out — from the heart of God, and therefore Scripture itself comes from the very being of God. When we speak about being inspired with something, we talk about being enthusiastic or apprehending something, and the word “illumination” sort of gets at what that concept’s all about,

that we need the Holy Spirit who inspired infallibly God's Word to give us apprehension and understanding so that our minds might be illumined by God's truth, that we may grasp God's truth clearly.

— Dr. Simon Vibert

(제임스[Thad James, Jr] 목사) 영감은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감동시키실 때 하셨던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영감을 받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명을 받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능력을 주고 계신다는 뜻이다.

Inspiration is what God did when he inspired the writer, so, we are no longer being inspired. But we are being illuminated, which means that God is, through the Holy Spirit, shedding light, giving us spiritual discernment and giving us the ability to help to understand what these words are saying.

— Rev. Thad James, Jr.

지금까지 우리의 성령님에 대한 의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의 일환으로 인간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탐구해 보자. Now that we've seen how important our dependence on the Holy Spirit is, let's explore the need for human effort as part of our preparation to interpret Scripture.



### III. 인간적인 노력의 필요성(NEED FOR HUMAN EFFORT)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고찰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에 스며있는 영향들의 일부를 검토할 것이다. 그럼 먼저 인간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살펴보자. We'll consider our need for human effort in two parts. First, we'll look at the importance of human effort. And second, we'll survey some of the influences that inform our human effort. Let's turn first to the importance of human effort.

#### A. 중요성(IMPORTANCE)

너무나도 자주 선의의 기독교인들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사역을 인간의 노력과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 우리의 노력이 없이, 심지어 우리의 노력과 반대로 일하시는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인간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시는 가장 통상적인 방식은 우리의 부지런한 작업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부지런한 작업과 결부시켜 조명하시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가 성경 해석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분명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자리가 있다. All too often, well-meaning Christians think of the work of God's Spirit in biblical interpretation as the opposite of human effort. It's true that sometimes the Spirit works beyond our efforts, without them, even against them as we study the Bible. But this doesn't eliminate the need for human effort as we interpret the Scriptures. The most ordinary way that the Spirit illumines us is through, or in conjunction with, our hard work. For this reason, while we mustn't reduce biblical interpretation to a human endeavor, there's a

very important place for working very hard to understand the Scriptures properly.

불행하게도, 어떤 그룹에서는 그리스도의 선의의 제자들이 성경 읽는 것을 준비할 때 인간의 노력처럼 보이는 어느 것이라도 최소화하려고 한다. 그 대신에 그들은 자주 성경 본문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수동적인 독자들에게 오는 “영적인” 접근법을 선호한다. 이런 신자들은 우리의 성령님에 대한 의존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점에 대하여 그들을 칭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적인 노력을 회피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딤후 2:15 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썼다.

**(딤후 2:15) 너는 최선을 다해 네 자신을 인정된 자 곧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다루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Unfortunately, in some circles, well-meaning followers of Christ minimize anything that looks like human effort when they prepare to read the Bible. Instead, they often prefer a “spiritual” approach, where the message of a biblical text comes to passive readers directly from God. These believers rightly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our dependence on the Holy Spirit. And we can admire them for that. But their avoidance of human effort is unbiblical. As Paul wrote in 2 Timothy 2:15:

**Do your best to present yourself to God as one approved, a workman who does not need to be ashamed and who correctly handles the word of truth (2 Timothy 2:15).**

이 구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다루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했다. 그러나 바울이 그의 관점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은유에 유의하라. 디모데는 “일꾼”이 되어야 했다. 여기서 바울이 쓴 헬라어 단어 [에르가테스]는 자주 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의 최선을 다해야 했다. 아니면 어떤 번역본들이 표현한 것처럼 그는 “부지런해야” 했다. In this verse, Paul encouraged Timothy to be a man who correctly handles the word of truth. But notice the metaphor Paul used to convey his perspective. Timothy was to be “a workman.” Here the apostle used the Greek word *ergates*, a term that often referred to field laborers. And Timothy was to do his best, or as some translations put it, he was to “be diligent.”

성경의 해석자를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밭의 노동자에 비유함으로써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성경 연구에 있어서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면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정확히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성령님에 대한 의존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가? By comparing an interpreter of the Bible to a diligent, hard-working field laborer, Paul encouraged Timothy to exert strong effort in his study of Scripture. But what exactly does that mean? And how does our dependence on the Holy Spirit interact with our human effort?

(빈잔트 [Carey Vinzant] 박사)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실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경 해석을 공부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매우 간단하다. 하나님은 게으름에 대하여 상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설교 준비를 하지 않는 목회자에게 기름부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는 것은 근면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기 때문이다. 성경 해석의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인지적인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화의 과정도 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 특정 본문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식대로 더 많이 생각하며 사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는 사람이 된다. If understanding the Bible is something that the Holy Spirit does and not something that we do, why do we bother with working at biblical interpretation? And the answer to that is very simple. God does not reward laziness. God does not anoint the minister who doesn't prepare to preach. To be involved in God's work requires diligence because God is not just working through us, he is also working on us... In the process of biblical interpretation, what is happening is not just a cognitive thing where we're coming to understand what the Bible is saying, there's also a sanctifying process that God is doing in us so that we become not just people who understand what this particular passage says, but we become people who think more the way God wants us to think, the way he designed us to think, to see things his way.

— Dr. Carey Vinzant

성령님에 대한 의존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수동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 사실상 믿을 만한 해석은 고된 작업을 포함한다. 성령님에 대한 의존은 그분이 마련해 놓으신 도구들과 기회들에 대한 의존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결국 성령님은 성경이 독자편의 인간적인 노력을 포함한 인적 수단들을 통하여 전달되도록 의도하셨다. Dependence on the Holy Spirit doesn't imply that we should be passive when we interpret Scripture. In fact, responsible interpretation involves hard work. We might even say that dependence on the Spirit includes dependence on the tools and opportunities he's provided. After all, the Holy Spirit designed Scripture to communicate through human means, including human effort on the part of the reader.

~~사실상, 통상적으로실제로~~ 성령님은 우리가 준비하는데 들이는 노력을 수단으로 삼아 ~~통상적으로~~ 우리를 조명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이 음식을 먹는 과정을 통하여 영양을 취하듯이, 전형적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낭독과 연구의 과정을 통해 역사하시며 따라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에 대한 더 완전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In fact, the Holy Spirit ordinarily illumines us by means of the efforts we put into preparation. Just as our bodies normally receive nourishment through the process of eating food, the Spirit typically works through the process of our reading and study to give us a fuller understanding of his Word.

이제 성경의 어떤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보다 더 많은 인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성경 독자들에게 분명해져야 한다. 척도의 한 쪽 끝에는 매우 분명해서 이해하는데 별다른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어떤 본문들이 있다. 수세기를 거쳐 오는 동안 ~~바르게~~ 개신교들은 구원을 위해 믿고 순종하는데 필요한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매우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거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바르게 주장해 왔다. 척도의 다른 끝에는 매우 어려운 많은 본문들이 있고 심지어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어떤 본문들도 있다. Now, it should be clear to most readers of Scripture that some portions of the Bible require more human effort than others. On one end of the scale, some passages are so clear that they require very little effort to understand. Throughout the centuries, Protestants have rightly held that what is necessary to be believed and obeyed for salvation is so clear in one place or another in Scripture that nearly everyone can understand it. On the other end of the scale, many portions of Scripture are very difficult, and some may even be impossible to understand fully.

그러나 실질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 본문은 이 두 양 극단 사이에 있는 ~~분포 범위의~~ 어느 한 지점하나에 위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보다 더 분명한 부분들은 준비에 있어서 ~~비교적 적은~~ 인간적인 노력을 비교적 적게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 더 어려운 본문을 다룰 때 적절한 준비 ~~는를~~ 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더 높은 증가된

수준의 인간적인 노력~~을~~ 요구~~하~~된다. But practically speaking, most passages of Scripture fall along a spectrum between these two extremes. The clearer portions of Scripture normally require relatively little human effort in preparation. But when we deal with more difficult passages in Scripture, adequate preparation usually requires increased levels of human effort.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준비에 있어서 인간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에 가하시는 영향들의 일부를 인식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In addition to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human effort in preparing for interpreting Scripture, it also helps to become aware of some of the major influences that God normally brings to bear on our human effort.

## B. 영향들(INFLUENCES)

오늘날 선의의 성경 해석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외부적 영향들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삶의 경험들로부터 벗어나 선입견이 없이 바로 성경에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인간적인 노력에 관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러지 않으려고 제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수많은 영향들을 받은 상태로 성경을 접근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영향들을 더 많이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우리는 그것들이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그것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방해가 될지~~를~~ 더욱더 잘 분별할 수 있다. If there's one thing that hinders well-meaning biblical interpreters today, it's that they think they can study the Scriptures in ways that don't reflect external influences on their lives. We think that somehow we can rid ourselves of our life experiences and simply go to the Scriptures without preconceived notions. But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remember about our human effort in biblical interpretation is that no matter how hard we try to do otherwise, we always approach the

Scriptures affected by countless influences. And the more we're aware of these influences, the better we'll be able to discern whether they're positive or negative, whether they help us or they hinder us as we interpret the Bible.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준비할 때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에 미치는 세 가지 주요 영향들을 고찰할 것이다. 이 영향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논의의 편의상 우리는 그것들을 분리해서 다룰 것이다. 우리가 다룰 첫 번째 영향은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의 성경에 대한 우선적인 의 석의이다. We'll consider three main influences on the efforts we exert when we prepare to interpret Scripture. These influences are interrelated, but we'll treat them separately for the sake of simplicity. The first we'll mention is our prior exegesis of Scripture.

## 1. 석의(EXEGESIS)

이 강좌의 목적상 우리는 석의를 “성경 본문들로부터 의미를 이끌어내는 일”이라고 정의할 것이다. 석의는 특별히 역사적 맥락, 문학적 형식, 문법과 어휘의 사용, 신학적 배경 등과 같은 것들을 살피며 본문으로부터 의미를 찾아낸다. 석의에 관하여 말할 것이 많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다만 우리가 과거에 했던 석의가 해석이란 작업을 위한 우리의 준비에 해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도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For the purposes of this series, we'll define exegesis as:

### **Drawing meaning out of biblical texts**

— especially by looking at things like the historical context, literary forms, use of grammar and vocabulary, theological setting, and so on. Although there are many things we might say about exegesis, for now, we just want to point out that the exegesis we've done in the past helps prepare us for the task of interpretation.

우리가 성경의 석의와 관련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로 성경의 후속적 해석을 준비하게 해 준다. 성경을 한 번 접함으로써 우리가 얻은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는 우리가 성경을 접하는 다음 번사간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의 어휘와 문법을 배울 때마다 성경의 이러한 측면을 보다 믿을 만하게 다룰루는 우리의 능력이 향상된다. 우리가 내러티브, 율법, 시, 예언, 금언 등과 같은 문학적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다음 번에 그것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성경의 고대 역사에 관하여 배울 때 한층 더한 이해를 위해 성경으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성경의 석의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우리로 후속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킨다. Every involvement we have with the exegesis of Scripture prepares us for further interpretation of the Bible. The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we develop from one encounter with the Bible influence us the next time we go to Scripture. For instance, every time we study biblical vocabulary and grammar, we increase our ability to handle these aspects of Scripture more responsibly. When we work to understand the literary types of Scripture, such as narratives, laws, poetry, prophecies, proverbs and the like, we're better equipped to understand them at a later time. And as we learn about the ancient history of the Bible, we're prepared to come back to the Scriptures for further understanding. Every effort we put into the exegesis of Scripture helps prepare us for further study.

해석학에서 우리의-있어서 인간적 노력에 미치는영향을-마치는 두 번째 종류의 영향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상호 작용이다. A second type of influence that affects our human efforts in hermeneutics is our interaction in community.

## 2. 상호 작용(INTERACTION)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은 성경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가장 영향력이 크지만큰-것이지만 자주 평가 절하되는 영향이다. 우리 모두는 성경의 석의 작업에 직접 관여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든지



못하든지—안—하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일이다. Interaction with other people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but frequently underestimated, influences on our efforts to understand the Scriptures. We all want to engage in direct exegesis of the Bible. But whether we realize it or not, it's nearly impossible to interpret the Bible without being influenced by our interactions with other people. And this is a good thing.

과거의 세상에 살았거나 현재의 세상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커다란 은사와 통찰력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아 왔다. 그들은 귀중한 참고 문헌을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우리에게 경건한 충고를 주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경의 언어들과 문학과 역사 그리고 모든 종류의 다른 것들에 관하여 가르쳐 준다. 우리가 수중에 갖고 있는 성경들 자체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것들은 학자들, 번역자들, 편집자들, 발행자들의 작업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다. —Other people, both from the present world and from the past, have received great gifts and insights from the Holy Spirit that can help us as we interpret Scripture. They've produced valuable reference works. They give us godly counsel. They teach us about biblical languages and literature and history and all sorts of other things that help us understand and apply God's Word. Even the very Bibles we hold in our hands have come to us from other people. They've come to us through the work of scholars, translators, editors and publishers.

이외에도 대부분의 우리는 우리의 교회나 교단을 포함하여한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특정의 기독교인 공동체를 갖고 있다. 이 공동체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전통을 공유한다. 우리가 목사들, 교사들, 다른 개개 신자들로부터 받는 입력 정보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도와준다. Beyond this, most of us have specific Christian communities where we feel at home, including our churches and our denominations. These communities share common traditions that influence

the way we read and understand Scripture. And the input we receive from pastors, teachers and other individual believers helps us in many ways too.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 실패, 통찰을 통하여 ~~많은~~ 귀중한 것들을 많이 배운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과거의 사람들과 현재의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과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배운다. 우리가 인식하든 지 못하든 ~~지~~ ~~안~~ ~~하든~~ 우리의 모든 성경 해석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깊이 영향을 받고 받아야 한다. We learn many valuable things through the successes, failures and insights of others. We learn from those who are like us and those who are different, from those in the past and those in the present, from those we know personally and those that we've never met. Whether we recognize it or not, all of our interpretations of Scripture are and should be deeply influenced by other people.

준비하는데 들이는 우리의 노력에 미치는 세 번째 주요 영향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이다. A third major influence on our efforts in preparation is our personal Christian experience.

### 3. 체험(EXPERIENCE)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체험의 일부 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미 언급한 석의나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우리 강의의 이 시점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 혹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동행에 관하여 말할 때 ~~우리가~~ 보통 고려하게 ~~되~~는 종류의 일에만 집중하고자 한다. 기독교인의 삶의 이러한 개인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된다. It's fair to say that anything we encounter in our lives as Christians is part of our Christian experience, including things we've already addressed like exegesis and interaction with others. So at this point in our lesson we want to focus on the kinds of things we normally think of when we talk about our personal Christian experience or our walk with

God. These personal aspects of Christian living contribute to our interpretations of Scripture in a variety of ways.

예를 들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성숙장과 성화는 성경을 해석할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은 성경을 파악할 우리의 능력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신실할 때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낄 때, 일반적으로 그들은 성경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음을 대개 깨닫는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지 못할 경우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일은 자주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적용을 낳는다. For instance, our Christian growth and sanctification increase our ability to interpret the Bible; the ways we live deeply affect our ability to grasp the Scriptures. When followers of Christ are faithful — trying to think, act and feel in ways that please God — they usually find that they're better prepared for learning more from the Scriptures. But if we haven't brought our lives into conformity to the Word of God, studying the Bible often leads to misinterpretation and misapplication.

우리의 과거의 체험들도 성경을 믿을 만하게 해석할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든 신자들에게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갖도록 해 준 체험들이 있다. 이러한 체험들은 성경을 해석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누가복음에 표현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명예를 중요시하는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은 수치에 관한 구절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Our past experiences can also affect our ability to interpret responsibly. All believers have had experiences that shape the way we think, feel and behave. And these experiences influence our efforts to interpret Scripture. For example, someone who grew up in a wealthy environment may find i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cern for the poor expressed in Luke's gospel. Someone who was raised in a culture that stressed honor might be more likely to understand passages concerning shame.

이외에도 각 개인은 그 나름의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 여러 가지 능력과 무능력,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은사,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Beyond this, each individual has different personal strengths and weaknesses, different abilities and blind spots, different gifts from the Holy Spirit, and, of course, different sins. In one way or another, all of these things influence our competence when it comes to interpreting and applying Scripture.

(소우네스[K. Erik Thoennes] 박사) 우리의 죄는 성경 안에 있는 것을 포함~~하~~한 일반적인 진리를 이해할 우리의 능력을 방해한다. 성경은 우리가 죄성을 지니고 불의하게 진리를 억누른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진리를 이해~~할~~하는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죄가 갖고 있는 ~~우리의 죄가 미치는,~~ 왜곡시키는 영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이르렀을 때 죄의 그러한 곡해시키는 영향을 받지 않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일들 중의 하나이며,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진심으로 그분께 감사드려야 할 것이다. Our sins inhibit our ability to understand truth in general, including in the Bible. The Bible says that we suppress the truth in unrighteousness in our sinful nature. And so there's a distorting effect that our sin has in our ability to understand truth. And so when we come to the Bible, understanding it without that twisting effect of sin is one of the things the Holy Spirit enables us to do that we are very grateful for.

— Dr. K. Erik Thoennes

(키너[Craig S. Keener] 박사)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들이 찾고자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죄는 성경 해석을 방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세기 전에 노예 소유자들은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는 성경 해석의 관점을 제안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길이었으므로 만일 그들이 노예들로 설교를 듣도록 허용했다라면 종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에베소서 6 장 5 절을 가지고 설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6 장 9 절 곧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라”는 말씀에는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의미하는 것은 만일 당신이 실제로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다시 말해 주인들이 실제로 그들의 종들을 섬겨야만 한다면—아마도 노예 제도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것이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동기들동기들을 파괴하였을 것이기 때문이**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경을 접근할 때 갖는 의제가 있고 그들의 삶의 이 사는 방식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 그들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끝내려고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정반대의 문제를 갖기도 한다. 그들이 항상 정죄를 기대하거나 항상 죄책을 기대하는 배경에서 왔다면 그들 또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의 전제들에 비추어 성경을 읽는 대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참으로 본문의 메시지가 정말 무엇인지 들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Sin can hinder our interpretation of Scripture because people tend to find in Scripture what they want to find. For example, a few centuries ago slaveholders came up with a way to interpret Scripture that justified slavery. It was in their own economic interests to do so, so they would — if they allowed the slaves to be preached to at all — they would preach from Ephesians 6:5 where slaves are supposed to obey their masters. They wouldn’t pay any attention to 6:9, however, which says, “And masters, you do the same things

to them.” I mean, if you actually take that seriously — if masters actually have to serve their slaves — slavery probably wouldn’t last very long. It kind of destroys the economic incentives. But when people have an agenda that they approach Scripture with and they’re trying to justify the way they live, they’re going to end up reading Scripture in that way. Now, sometimes people have the opposite problem. They may come from a setting where they’re always expecting condemnation or they’re always expecting guilt, and they read Scripture that way too. Instead of reading Scripture in light of our presuppositions, we need to, as best as possible, try to hear what the message of the text really is to us.

— Dr. Craig S. Keener

#### IV. 결론(CONCLUSION)

해석을 위한 우리의 준비에 관한 이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준비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유기적 영감과 성령님의 조명이란 교리의 관점에서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고찰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해석적인 **노력작업**에 가하시는 영향들의 일부를 조사함으로써 인간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n this lesson on our preparation for interpretation, we’ve looked at two critical aspects of the preparations we should make before we interpret Scripture. We’ve considered our dependence on the Holy Spirit in terms of the doctrines of organic inspiration and the Spirit’s illumination. And we’ve emphasized the need for human effort by looking at the importance of human effort and by surveying

some of the influences that God normally brings to bear on our interpretive efforts.

성경 해석을 위한 준비는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한 의존과 많은 인간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우리는 성령님께 ~~자주~~ 기도를 드리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의식적인 ~~복종을~~ 하는 자세로 성경을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성경을 영감하셨고, 아버지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조명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고, 순례길의 걸음마다 우리의 자신의 삶에 성경을 적용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노력을 쏟아 붓도록 정명해 놓으하셨다.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우리의 일평생 동안 계속해야 하는 복합적인 잡한 일이므로 우리는 가능한 한 철저히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에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준비를 더욱더 잘하게 될 것이다.

Preparation for interpreting the Bible requires us both to depend on the Holy Spirit and to put forth a great deal of human effort. We have to approach Scripture in conscious, prayerful submission to the Holy Spirit because he inspired the Scriptures and because the Father sent him to us to illumine our minds and hearts to understand the Scriptures. But at the same time, God has ordained that we should put forth our own efforts as well, by reading, studying, interacting with others and by applying the Scriptures to our own lives every step along the way. Interpreting the Scriptures is a complex project that we must pursue throughout our entire lives, so we must be careful to prepare ourselves as thoroughly as possible. The more we pay attention both to God's Spirit and to our human efforts, the better prepared we'll be for interpreting the Bible.